

정보 마당

장마철 침수차는 폐차대상, 응급조치 10계명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철에는 자동차 고장과 사고가 급증하고 자동차 수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장마철 자동차 응급조치 10계명”을 소개한다.

1. 장마철,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한다.

보험가입 운전자중 약 40%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제외하고 가입하여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인, 대물 외 자차를 가입해야만 주차중·태풍·홍수·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장마철에는 자차보험은 필수이며 자신의 보험을 가입 대리점에 확인하여 추가 가입도 가능하며 그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보상 기준은 자동차의 차령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공제한 보험시가를 기준 한다.

2. 장마철에는 기술운전보다 정보운전을 한다.

장마철에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술운전이 아닌 기상정보운전을 해야 한다. 장거리 주행 전에는 행선지 구간의 기상정보는 필수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20mm 이상이거나, 1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 때문에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트렁크에는 항시 우산과 비상삼각대, 손전등을 준비해 둔다.

3. 장마철 필수 점검대상은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브레이크

눈길보다 위험한 것이 빗길 운전이다. 눈길은 스노우체인이나 도로의 염화칼슘살포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빗길은 속수무책이다. 비오는 날엔 수막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 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정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내에서 높여주고 마모가 심한 타이어 사용은 위험하다. 장마철에는 시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빗길의 잦은 전조등 사용, 에어컨, 윈도브러쉬 작동으로 배터리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다. 빗길에는 잘 가는 차보다 잘 서는 차가 안전하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타이어 공기압 점검도 필수이다.

4. 장마철에는 주차도 안전지대가 있다.

장마철 기간에는 평상시에도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주차시 혹시 최근에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강변·하천·교량 밑 주차는 피한다. 안전한 곳이라도 주차시 차량 전면이 출구 쪽으로 향한다. 가급적 홍수 위험이 있을 땐 자동차를 고지대나 이동이 용이한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지혜도 필요하다.

5. 물먹은 중고차 거래시 “기피대상1호”

침수 중고차는 추후 거래시 공식적으로 약 20~30% 정도의 추가 감가상각이 발생된다. 요즘은 중고차시장에서 2천cc형 디럭스 상품 중고차 거래 가격은 약 1천만원 선에 형성되지만 만약 이번 장마에 침수된다면 7백만 원에도 거래가 어렵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된다.

6. 휴대폰에 정비출동반, 보험사 긴급번호 입력.

장마철에는 멀쩡한 자동차가 침수관리 요령 부족으로 수명을 마감하는 폐차 차량이 급증한다. 침수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보며 요즘은 차량은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침수는 컴퓨터가 물에 빠진 것과 같다. 물에 빠진 컴퓨터를 무리하게 부팅시키면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침수 차는 성급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신속하게 긴급출동 정비반이나 보험사에 연락한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빠른 시

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거나 견인하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한다.

7. 침수차량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침수차는 먼저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침수가 확인되면 2~3번 오일을 교환해 준다. 엔진룸과 차내의 흙 등 이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유를 뿌려줘야 한다. 완전 침수 차량의 수리시 정비업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2~3군데 비교 견적후 결정하며 침수차는 수리후 재고장이 많기 때문에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부식이 가장 큰 휴유증이며 차량 내부도 깨끗한 물로 충분한 세척이 필요하다.

8. 장마철 곰팡이 냄새는 겨자물 요법.

미국에서 차내 향수나 방향제 사용은 피로와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금지시킨다. 요즈음 여성운전자들 차내 냄새제거를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냄새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장마철 습기로 인한 차내 냄새는 겨자를 물에 혼합하여 발밑의 가속 페달 옆에 공기흡입구와 송풍구에 천천히 뿌려주면서 송풍레버를

3~4단으로 틀어주면 감쪽같은 효과가 발생된다.

9. 담배꽂초를 아시나요?

비가 올 때 백미러에 물방울이 묻어 있으면 거리 감각이 부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따라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전에 미리 도어 미러에 묻어 있는 물방울을 닦고 출발하며 열선이 없는 차량은 담배꽂초를 사용해 거울에 골고루 문질러주면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감작스러운 윈도부러쉬의 고장으로 시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도 담배요법을 쓰면 어느 정도 응급효과를 볼 수 있다.

10. 빗길 시계 확보는 앞 유리창 관리부터.

윈도 와이퍼 부러쉬 작동시 "뿌드득" 마찰음이 계속 나는 경우는 부러쉬의 불량 문제보다는 앞 유리에 배출가스로 인한 찌든 기름때가 원인이다. 이럴 때는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구석구석 깨끗하게 두 세 번 정도 닦아주면 감쪽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폭우를 대비해서 엔진룸에 있는 워셔액의 양과 분사방향을 점검한다. 분사방향은 편을 사용하여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방사선안전관리자 릴레이 인터뷰 ③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칠태진 교수



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방사선물리학과 의공학을 가르치며, 3차원 뇌정위수술프로그램인 포톤나이프 개발 등 종양치료기술 개발과 의료원의 방사선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동산의료원 칠태진 박사를 만나 보았다.

1974년 서철성 박사의 추천으로 동산기독병원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실에 근무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기술 개발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최고수는 동산의료원의 소개를 먼저 해주었다.

동산의료원(당시 동산기독병원)은 5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라듐치료와 방사선학을 전공하신 서철성 박사가 방사선치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100KV X선의 표재치료와 250KV X 심부치료기로 암을 치료하였으며, 70년대 초에 미국북장로교에서 기증한 코발트-60 감마선으로 세브란스 암센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고에너지 감마선에 의한 방사선치료를 시술하였다고

한다.

최 교수는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번은 이웃 대학병원에 선형가속기를 설치하는데 도로 건너 건물의 약국에 계시는 분이 정부에 건의하여 공사를 중지토록 민원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법과 선진국의 권고안보다 훨씬 강화하여 계산상에만 나타날 자연방사선 이하의 수준의 시설로 건설한다고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아 정부 고위층에서 민원내용을 조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말한 뒤 “당시 보고서 ‘건너편 약국에서 마약을 조제할 때 발생한 분진에 의해 길 건너편의 집에 사는 유아가 습관성 마약중세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비유하였으며, 유사시 가장 안전한 대피건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해서 민원인을 안심시킨 일이 있습니다. 요즘 넘버사조가 팽배하고, 불신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도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알면서 피폭되는 선량에 비해 모르고 피폭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에도 제대로만 알면 피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었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80년도에 취득한 최 교수는 “당시는 고시를 친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출제된 문제는 방사성물질을 다루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해결형으로 이론과 실험이 병행된 것으로 기억되며, 임상에 임할 때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는데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감독자 면허를 소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역할이 크므로 더욱 더 인격적 함량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라고 면허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이어서 최 교수는 우리협회 창립20주년에 즈음한 축하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었다.

“격동기와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본지의 100호 및 창립20주년의 성숙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협회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성숙된 안목으로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협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전원 교회에 참여하여 성경공부를 하면서 평소 정리되지 못한 내면을 다듬어 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최교수는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존하는 곳에는 항상 사랑과 희망을 같이 하는 아픔이 있게 마련이며, 위로하다 보면 신선한 정신적 활력이 피로를 씻어 준다고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 본 릴레이 인터뷰의 내용은 본 협회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수는 다음번 인터뷰 주자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홍종욱님을 추천하였습니다.